

전남도 복지기동대 만족도 98%…올해 지원 확대

도민 불편 해소 효자 노릇 '톡톡'
지난해 8만9000가구에 132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올해 6만 가구 108억 지원키로

전남도의 대표적인 밀착형 복지 서비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가 98%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에 나선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기동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8만 9349 가구에 132억 3800만원의 예산과 민간 자원이 투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출범 이후 2025년 12월까지 누적 지원 실적은 31만 5296가구, 누적 지원 금액은 502억원에 달한다. 특히 '위기기구' 발굴 분야에서만 누적 8만 2846가구를 찾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기동대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감도 높다.

전남도가 복지기동대 이용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3.9%에 달해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전등·가스·수도 수리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불편 개선(주거 개선)' 서비스



지난해 열린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왼쪽) 복지기동대가 노후 주택을 찾아 환경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가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자의 56%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63%)와 차상위계층(19%)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96.7%)과 향후 재이용 의향(98.3%)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활성화 방침이다. 올해 총 6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10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료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이내) ▲위기기구 생계·의료·주거비 지원(가구당 70만 원 이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특히 전남도는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견의사항을 수렴해, 지원 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지원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이·통장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에 도전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지기동대는 도민들이 부끄러워 느끼는 가장 가까운 복지 청구"라며, "2026년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남도 내에는 22개 시·군에 총 319개 기동대, 5241명의 기동대원이 활동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왕우렁이 피해 막아라…도, 논 깊이갈이 앞당겨

2월 15일까지 캠페인

전남도가 왕우렁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15일까지 '논 깊이갈이 앞당겨 실시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왕우렁이는 벼 재배농가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친환경 농법 중 하나지만, 동사하지 않고 겨울을 버텨낼 경우 잡초가 자라나지 않는 벼 재배 초기 벼를 깎아먹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왕우렁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겨울철 논 깊이갈이를 통해 땅 속에 서식하고 있는 왕우렁이를 외부로 노출시켜 수분 부족과 추위로 동사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평년 깊이갈이 시기(3~4월)보다 이른 연초에 1만 5000㏊를 대상으로 논 깊이갈이를 실시, 왕우렁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봤다.

올해는 지난 13일 해남 마산면 간척지 일대에서 트랙터 '논 깊이갈이 시연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 깊이갈이 등 논 말리기 확산에 나선 상태다.



왕우렁이 퇴치기술 연구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겨울철 논 깊이갈이 등 논말리기만 제대로 이뤄져도 왕우렁이 개체수를 줄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매년 3~4월 하던 논 깊이갈이를 농한기인 1~2월에 앞당겨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에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이에 따라 미국 내 김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이날 미국을 향해 선적된 전남 김치는 알타리 김치, 파김치, 포기김치 등 5종이다. 총 1830박스, 9000만원 규모다. 물량은 미국 내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최근 한류 확산과 밸효·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김치 수요가 늘고 있다.

전남의 김치 대미 수출액은 2023년 155만 달러, 2024년 157만 달러, 2025년 184만 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김치 미국 수출 확대 '청신호'

美 식단 지침에 '건강식 발효식품' 주목…나주시 선적식

전남도는 20일 나주에 있는 ㈜골든힐에서 '전남 김치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거점으로 김치 수출 확대에 나섰다.

〈사진〉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의 식생활 정책의 기준이 되는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은 최근 밸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형성에 기여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치를 대표적 밸효식품의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다.

미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은 학교급식·군급식·영양지원 프로그램 등 미국 공중보건 체계 전반

전남 '지역사랑 휴가'로 관광객 유치 총력

전남도가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전남지역 시·군으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관광객이 여행 중 지출한 비용의 50%를 20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에 공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전국 20개 지자체를 선정, 지자체 당 3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역 16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무안군 제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시·군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특히 체류형 관광 콘텐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역 상권 연계 소비 모델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하고자 한다.

전남도는 지역 회복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종-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